

# 1950년대 인도네시아 지역반란과 화인사회: 국민당계의 몰락을 중심으로\*

여운경\*\*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지역반란과 화인사회, 그리고 국민당계 |
| II. 냉전과 내전, 외국의 개입           | V. 결론                    |
| III. 두 개의 중국과 인도네시아 화인사회의 분열 |                          |

## | 논문요약 |

본 논문은 1950년대 인도네시아의 지역반란과 그로 인한 화인사회의 변화, 특히 국민당계(친 대만) 화인들의 쇠퇴에 대한 연구이다. 1950년대 중반 수마트라와 술라웨시에서 반공과 지역자치 강화의 기치를 내건 지역반란(PRRI, Permesta)이 발발했을 때, 냉전 사고에 사로잡혀 친 중국, 친 공산주의 성향의 인도네시아 정부를 몰아내려 한 미국과 대만을 비롯한 우방국들은 반군세력을 지원했다. 대만이 반란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또 인도네시아의 국민당계 화인 다수가 이 반란에 연루되면서 화인사회의 정치적 분열이 심화되었고, 국민당계 화인들은 정부의 정치적, 경제적 탄압에 직면했다. 이 연구는 당시의 지역반란이 냉전구도 속에서 인도네시아가 미국 및 다른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연결되는 장이었음을 보여주고, 이런 상황이 1950년대 인도네시아 화인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분석한다.

▪ 주제어: 지역반란, 인도네시아 화인사회, 국민당계, 대만, 냉전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362-2008-1-B00018).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HK 조교수.

## I. 서론

1958년 9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52개의 ‘국민당계(Kuomintang)’ 기구를 불법화한다고 선언했다. 여기에는 중화총회(Chung Hua Tsung Hui)나 중화상회(Tiong Hoa Siang Hui) 같은 정치, 경제기구들 뿐 아니라 문화·체육단체, 영화관, 그리고 학교와 신문사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조직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이들 조직들은 (인도네시아와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던) 대만국민당 혹은 그 지지세력과 연결되어 있고, 그런 점에서 인도네시아의 국익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불법화되었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1950년 이후 이들 기구의 회원이었던 사람과 그 기간 동안 대만을 방문했던 사람은 안보기관에 자진 신고하고, 신고 시 본인의 재산상황까지 보고하도록 요구되었다(*Djakarta Miscellany*, 1958/09/26). 1958년 중반 이후 자카르타에서 시작된 국민당 관련 중국인들에 대한 이런 억압은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사실 인도네시아 근현대사에서 화인과 ‘토착민(orang asli)’의 갈등, 그리고 화인들에 대한 탄압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식민지기 이전부터 상업활동을 통해서 큰 부를 축적한 화인들은, 네덜란드 식민지배기에는 정부와의 공생관계를 통해 강력한 경제적 지위를 구축함으로써 비중국계 주민들의 부러움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sup>1)</sup> 독립 이후 새 국가를 건설하는 와중에서 부와 경제력을 장악한 화인들은 경제악화의 주범으로 공격을 받았고, 1950년대 중반부터 진행된 외국자본 국유화로 경제적 타격을 입기도 했다. 수하르토 정권의 경우처럼, 정부가 화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주고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대신, 이들의 정치 참여를 원천봉쇄한 경우도 있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전에 화인에 대한 비판과 억압이 화인사회 전반, 혹은 주로 일부 자본가, 상인 계층을 겨냥했던 것과 달리, 1950년대 중반부터는 이것이 이른바 ‘국민당계’, 즉 새로 등장한 공산주의 중국(PRC)에 반대하는 집단에 집중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서두에 소개된 것처럼, 인

1) 이런 이유로 앤더슨은 식민지기에 화인들이 네덜란드인과 더불어 가장 강력한 사회계층을 형성했다고 지적한다(Anderson 2002, 129).

도네시아 정부가 전면에서 이런 분위기를 주도하고 이를 위한 정책들을 실행했다. 이런 국민당계-공산당계의 구분, 그리고 국민당계에 대한 탄압의 집중은 어떤 배경에서 비롯되었을까? 국민당 관련 조직은 어떤 이유로 인도네시아에 해가 되는 집단으로 비판받았을까? 이런 상황은 왜, 어떤 사회적 맥락에서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기 시작했을까? 그리고 이것은 당시 인도네시아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상황, 즉 냉전구도와 중국에서 일어난 국민당정부의 패배와 대륙의 공산화라는 사건 등과 어떤 연관성이 있었을까?

동남아와 인도네시아 화인사회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화인의 이주 및 정착의 사회적·역사적 배경(Reid 1996; Chiro & Reid 1997), 인도네시아 화인들의 사회적 상황과 법률적 지위(Willmott 1961; Winarta 2006), 민족주의를 비롯한 정치현안들에 대한 인도네시아 화인들의 입장(Suryadinata 1995; 1997), 수하르토 집권기(신질서기) 화인들의 자본축적 및 경제적 성장(신윤희환 2001, 33-72), 시대에 따른 화인들의 정치적·경제적 입지, 입장의 변화(신윤희환 2000)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등장했다. 최근에는 화인과 화인사회를 보다 국제적, 초국가적 관점에서 보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국가단위를 넘어선 화인 상업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Liu 2001; Tagliacozzo & Chang 2011; Twang 1998; Yong 2003)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 이후 중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에 형성된 긴밀한 관계가 인도네시아 정치·사회적 지향에 큰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중국 사회의 변화와 인도네시아의 관계, 그리고 그것의 화인사회에 대한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찾기 어렵다.

최근 나온 류홍(Liu Hong)의 연구는 국제적 관점에서 1950-60년대 중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관계를 바라보려는 새로운 시도이다. 이 연구는 1950-60년대 중국-인도네시아의 정치적·문화적·사상적 관계가 독립 인도네시아 사회의 형성과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점차 반서구적 정치지향성이 강해지던 인도네시아가 중국에서 대안적 근대화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Liu 2011). 인도네시아 각계 지도자들이 어떻게 중국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를 분석한

이 연구는, 동시대 중국과 인도네시아 사회의 변화를 연결시켜 분석한다는 점에서 참신한 시각을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가 발전되는 가운데 당시 그런 친 중국적 성향과 대책점에 있던 반공성향의 ‘국민당계’ 화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논문은 1950년대 중반 국민당계 화인 문제가 왜 부각되었고 이들의 존재와 활동이 당시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를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무엇보다 필자는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정치적 혼란의 큰 원인이 되었던 지역반란이 화인사회에 가져온 변화에 주목한다.

가장 널리 알려지고 파급력이 컸던 지역반란인 수마트라의 인도네시아 혁명정부(Pemerintah Revolusioner Republik Indonesia, 이하 PRRI) 반란과 이와 연계되었던 술라웨시의 일반투쟁현장(Piagam Perjuangan Semesta, 이하 Permesta) 반란의 경우, 단순히 인도네시아 내의 지역갈등으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냉전구도 속에서 많은 국가들이 복잡하게 연관된 사건이었다.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다는 명목하에 냉전 주도세력의 하나였던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미국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던 영국과 여러 아시아 국가들(대만, 한국, 태국, 필리핀 등)도 연루되었다.<sup>2)</sup> 그중에서도 대만의 개입은 인도네시아 정치·외교적 지향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반란의 전개와 향후 인도네시아 화인사회의 상황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미국의 반란 개입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연구가 등장했고(Baskara 2007; Kahin & Kahin 1995), 영국과 호주 등의 개입에 대해서도 관련 학계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Jones 1999). 그러나 개입된 정도와 그로 인한 영향이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대만과 인도네시아 지역반란의 관계에 대해서는 캐힌(Kahin & Kahin)의 책에 부분적으로 분석된 것 외에는 유의미한 연구를 찾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 지역반란과 대만,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국민당계 화인들의 관계에 주목함으로써, 당시 인도네시아 화인 문제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의 국제정치 상황과 열

2) PRRI와 Permesta 반란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을 참조할 것(Asnan 2007; Baskara 2007; Doepers 1972; Harvey 1977; Leirissa 1991).

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지역의 냉전기 국제관계를 이해함에 있어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인도네시아 현지 자료(신문, 사료 등)를 분석함으로써, 당시 반란, 냉전, 화인사회를 바라보는 인도네시아 사회의 다양한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냉전과 내전, 외국의 개입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1950년대 인도네시아도 냉전구도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1954년 제네바 협정으로 1차 베트남 전쟁이 종결되면서 동남아시아지역의 냉전에 일시적 소강상태가 찾아왔지만, 곧 가장 위험한 냉전경쟁의 장으로 부각되었다. 당시 미국은 이른바 도미노 이론에 입각, 동남아시아 전체를 공산주의 확산의 전선에 노출된 전선으로 여겼고, 베트남뿐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북대서양 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의 동남아판이라 할 수 있는 동남아시아 조약기구(Southeast Asian Treaty Organization, 이하 SEATO)가 결성되어 미국의 반공노선에 보조를 맞추었다.<sup>3)</sup>

사실 1950년대 초반까지 미국과 인도네시아는 비교적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다. 1940년대 공산주의 붕기를 진압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수카르노(Sukarno)와 하타(Mohammad Hatta) 등 인도네시아 주류 지도자들은 대개 공산당과 거리를 두었다. 미국정부는 동남아의 냉전경쟁에서 인도네시아를 중요한 전략적, 경제적 기지로 인식했고, 인도네시아에 경제·군사 원조 등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자유세계’의 일원이 될 것을 촉구했다(McMahon 1999, 49-50). 그러나 기본적으로 중립노선 유지를 통한 독립 유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수카르노 정부는, 점차 미국의

3) 1954년 9월 마닐라에서 체결된 동남아 집단방위조약(Southeast Asia Collective Treaty)에서 동남아시아 조약기구(SEATO) 결성이 결정되었고, 1955년 2월 방콕에서 공식적으로 결성되었다. 명칭과 달리 이 조약기구에는 필리핀과 태국만이 동남아시아를 대표해 참가했고, 다른 회원국은 호주, 미국, 영국 등 서방국가와 파키스탄 등 인접지역 국가들이었다.

이런 강권에 경계심을 가지게 되었고, 1951-52년 미국이 제안한 상호방위 협정을 인도네시아가 거부하면서 양국관계가 점차 멀어지기 시작했다.

1955년경부터 양국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당시 인도네시아를 둘러싼 국내외 정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1955년 총선을 통해 인도네시아 공산당(Partai Komunis Indonesia, PKI)이 인도네시아 정치의 주요 정당의 하나로 떠올랐고,<sup>4)</sup> 이후 수카르노의 인도네시아 국민당(Partai Nasionalis Indonesia, PNI)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해갔다. 이런 상황은 인도네시아 공산화 가능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수카르노의 주도로 결성된 비동맹(Non-Alignment)노선에 동참한 ‘제3세계’ 국가들이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Bandung)에서 열린 제1차 아시아-아프리카(Asia-Africa)회의에 참석, 암묵적으로 중국과 보조를 맞추면서 수카르노 정부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불신은 더욱 깊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독립 당시 네덜란드 식민지로 남겨졌던 서파푸아(West Papua, 현재 인도네시아의 이리안자야 Irian Jaya)를 인도네시아의 영토로 승인해달라는 수카르노 정부의 요구가 미국의 암묵적 방해 속에 유엔에서 계속 거부되면서, 미국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다. 양국 간의 이런 갈등관계는 미국의 대동남아 정책, 그리고 인도네시아 지역반란의 전개에 큰 영향을 끼쳤다.

1950년대 중반부터 인도네시아 정부는 각 지역의 강력한 자치요구에 직면했는데, 일부 지역주의 운동은 때로 반란으로 이어졌다. 반란의 성격은 다양해서, 인도네시아의 이슬람국가화를 내세운 서부자바의 다룰 이슬람(Darul Islam), 그리고 후에 여기에 합류하는 남부 술라웨시와 아체의 반란처럼 종교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지역의 불만과 반란의 근본 원인은, 주로 자바 외의 섬들에서 생산되는

4) 1955년 9월 실시된 인도네시아 총선 결과는 인도네시아 사회가 지역적, 이념적으로 얼마나 극도로 분열되어 있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이슬람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덜했던 자바, 특히 중·동부 자바에서는 인도네시아 국민당과 공산당이 가장 큰 지지를 받았으나, 그 외 지역에서는 대부분 인도네시아 무슬림 연합회(Majelis Syuro Muslimin Indonesia, Masyumi)가 다수당이 되었다. 그러나 자바가 총 투표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인구 구성상 국민당이 22%의 득표로 다수당이 되었고, 공산당이 전체 16%의 득표율로 네 번째로 큰 정당이 되었다(Cribb 2000, 162-164).

풍부한 광물 및 수출작물로부터 나오는 경제적 이익과 그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었다. 각 지역, 특히 많은 자원을 보유한 수마트라나 술라웨시 등지의 정치, 군사 지도자들은 지역의 자원을 우선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요구했으나, 중앙정부의 입장은 모든 자원을 국가가 통제하고, 국가가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한다는 것이었다.

지역의 이런 불만이 극단적인 반란으로 표출된 대표적인 사례가 앞서 언급된 PRRI와 Permesta였다. 두 사건은 동떨어진 지역(수마트라와 술라웨시)에서 발생했지만, 긴밀히 연결된 하나의 반란이라 할 수 있다. 1956년 말부터 57년까지 이들 지역의 군사령관들이 해당 지역 정부의 통제권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를 인정하지 않을 것을 결의했다. 이들의 주된 요구사항은 인도네시아 군사령관 나수티온(Nasution)의 해임, 내각에서 공산당 성향 인사 배제,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의 자치권 확대 등이었다.

1957년 중반까지는 초기에는 정부와 지역 군 대표들 간의 협상을 통해서 순조롭게 사건이 해결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사실 중앙군과 지방 군사령부 모두 반공노선을 비롯한 정치적 성향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나수티온은 반군 지도부에게 새로 구성될 내각에서 공산당을 배제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1957년 9월 10일부터 12일에 자카르타에서 정부와 반군 수뇌부가 전국회담(Musyawahar Nasional, Munas)을 열어 협상을 통한 해결에 동의했다. 그러나 반정부 세력 내의 강경파들에 의해 이 타협안이 거부되었고, 1957년 11월 30일 자카르타 치키니(Cikini)지역에서 수카르노에 대한 암살시도가 거의 성공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Harian Rakjat*, 1957/12/02) 대립은 타협이 불가능한 상태로 치달았다.<sup>5)</sup>

5) 회담에 참석했던 반군 수뇌부인 후세인(Ahmad Husein), 수무알(H. N. Ventje Sumual), 바를리안(Barlian)은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결성, 사태 해결의 권한을 주자는 정부안에 동의했다. 그러나 수마트라에 남아 있던 심볼론(Maludin Simbolon), 잠백(Dahlan Djambek), 루비스(Zulkifil Lubis), 수미트로(Sumitro Djohadikusumo) 등 강경파들은 7인 위원회에 나수티온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중앙정부에 대해 지역의 입장에 동조할 만한 인물이 하타와 족자(Yogyakarta)의 술탄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타협안을 거부할 것을 주장했고, 결국 반군 내부에서 이들 강경파의 입장이 관철되었다. 회담의 내용과 반군의 입

반군 수뇌부는 줄곧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봉기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중앙정부는 이들이 수카르노의 실질적 2선 후퇴와 군사령관 나수티온의 사퇴 등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하는 것이 결국 수마트라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Negara Sumatera, Sumatra State)를 건설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거둘 수 없었다(*Harian Rakjat*, 1958/01/15). 물론 반군은 이런 정부의 주장을 적극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행위는 인도네시아 국가에 대한 반란이 아니라 ‘지역주의 운동(pergolakan daerah)’일 뿐임을 강조하였다(*Haluan*, 1958/01/05; 1958/01/21). 그러나 계속된 교착상태와 수마트라와 말레이 반도 사이의 무역 통제 등 정부의 강경책이 이어지면서, 결국 반군 사령관들은 1958년 2월 서부 수마트라에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를 대체할 새로운 혁명정부(PRRI)가 들어섰음을 공표했다(*Straits Times*, 1958/02/15). 1958년 4월 PRRI 반군의 근거지인 수마트라 서부의 파당(Padang)이 정부군에게 함락되고 뒤이어 마나도(Manado)의 Permesta 사령부도 함락되면서, 반정부 투쟁은 동력을 잃고 소규모 게릴라전 형태로 전환되었다가 1960년대 초에 완전히 진압되었다.

이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새로운 정부 구성을 선언하고 자카르타 정부와의 전면전을 기획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을 비롯한 외부로부터의 막대한 지원이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과 서구열강은 비동맹 노선을 비롯한 인도네시아의 반서구적 행보와 인도네시아 공산당의 득세, 그리고 점점 강화되는 수카르노의 친 공산당, 친 중국 노선에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1957년 자바 지방선거에서 공산당이 1955년 총선을 넘어서는 승리를 거두고 자바의 최대 정당으로 성장하면서,<sup>6)</sup> 미국정부는 자신들의 걱정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전망했다(Kahin & Kahin 1996, 107). 미국정부와 중앙정보부(CIA)는 ‘두 개의 인도네시아(공산화된 자바

장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Kahin & Kahin 1995, 72-73; 99-102). 한편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루비스는 수카르노 암살기도의 배후인물로 지목되어 수배를 받았다.

6) 공산당은 중·동부 자바에서 34%를 득표하면서 자바의 최대정당이 되었다. 이슬람 정당들과 다른 지역의 자본가들은 공산당이 1959년 선거에서 이와 비슷한 득표를 해서 연합내각에 포함될 경우 자신들에게 재앙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Cribb 2000, 165).



와 나머지 지역), 즉 ‘제2의 한국’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감수하고서라도 인도네시아 전역의 공산화를 막아야 한다고 판단하고(*Harian Rakjat*, 1957/09/09), CIA를 통해서 반공성향의 인도네시아 지역반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sup>7)</sup>

반군의 재정을 담당하던 수미트로는 싱가포르에 은행계좌를 열어서 반군에 동조하는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었는데, 미국정부도 그를 통해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다(Kahin & Kahin, 120-124). 미국은 재정적 지원 외에도 군사력 증강을 위해 직접 무기를 제공하기까지 했는데,<sup>8)</sup> 이 과정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근 국가들이 불가피하게 개입되었다. 일례로 미국의 무기 지원은 주로 필리핀의 항구로부터 시작되었고, 필리핀, 대만, 태국 등지의 공군기지들이 공군지원을 위해 이용되었다. 호주도 독자적으로 반군에 대한 지원을 제공했고, 영국의 경우 인도네시아와의 근접성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거점의 하나였던 싱가포르 공군기지를 미군 등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나 파당 합락 후 반군의 동력이 급속히 약화되었고, 1958년 5월 인도네시아 동부 암본(Ambon)을 폭격하다 격추되어 체포된 전투기 조종사 포프(Allen Pope)가 미군 소속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동안 공식적으로는 반란 개입을 부인해오던 미국이 더 이상 공개적으로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워졌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진 대규모 지원에도 불구하고, 반란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설부른 새 정부건설 선언으로 인한 중간세력의 이탈을 초래한 판단착오, (미국의 예상을 벗어난) 반군의 군사적 취약함, 그리고 초기에 반군에 대한 무기와 공군력 지원에 차질이 생기는 등의 문제로 인해, 반란 자체는 예상보다 신속하게 진압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반란의 전개과정에서 악화된 중앙-지역 관계, 그리고 공산주의를 둘러싼 국내외의 정치적 갈등 등이었다. 우선 인도네시아 내에서 미

7) 당시 자카르타 언론은 반군 지도부 중 한명인 심볼론이 이미 미국에서는 스타로 대접받는다고 비아냥거렸다(*Harian Rakjat*, 1957/01/16).

8) 1958년 5월, 파당 합락 후 Permesta 반군에게 협상을 권유하기 위해 정부군 대표로 술라웨시를 방문한 유수프(Andi Jusuf)는, 미군 폭격기와 미국인, 대만인 조종사들, 그리고 반군을 훈련시키는 대만인 장교들을 보면서, 미국이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음(Americans are running the show)을 깨달았다고 증언하고 있다(Kahin & Kahin, 167-168).

국 반공정책의 첨병으로 지목된 SEATO에 대한 반감이 높아졌다. 정부와 그 지지자들은 SEATO를 타도의 대상으로 비난했고, SEATO를 통한 미국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SEATO와 PRRI의 연계에 대한 의혹과 비난이 고조되었다(*Harian Rakjat*, 1958/03/26; *Harian Rakjat*, 1958/03/15).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부각된 이슈가 대만과 ‘국민당계’를 둘러싼 논란이었다. 다음 장에서는 우선 냉전기 인도네시아 화인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이후 반란과 국민당계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하도록 하겠다.

### Ⅲ. 두 개의 중국과 인도네시아 화인사회의 분열

점차 미국 및 서구열강과의 관계를 절연하기 시작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진전시키기 시작했다. 사실 1950년에 이미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맺어졌지만, 향후 몇 년간 별다른 교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상대적인 친미성향과 화인들의 국적 문제 등으로 양국 간 긴장관계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미국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중국이 대 아시아 외교에 적극 나서면서 1955년경부터 양국관계가 급속히 가까워졌다. 1955년 반둥회의에서 양국 간에 인도네시아 화인의 국적 문제에 해결을 위한 협정이 맺어졌다. 또 1956년 이후 수카르노, 하타 등 인도네시아 지도자들이 잇달아 중국을 방문하면서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고양되었고, 정부와 공산당, 급진적 지식인들은 중국을 다방면에서 인도네시아 근대화의 새로운 모델로 여기게 되었다.<sup>9)</sup>

우선 정치적인 면에서, 의회민주주의 종식을 선언하고 행정부와 기능집단에 권력을 집중시킨 교도민주주의(Guided Democracy)로의 이행을 선

9) 그러나 1950년대까지 공산당을 제외한 인도네시아 정치지도자들은 대체로 중국과 공산주의를 분리시켜서 보려는 경향이 강했다. 예컨대 중국은 공산주의 이념보다는 사회적 통합의 원칙하에 운영되는 국가이고,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과는 다르다고 해석되곤 했다(Liu 2012, 77).

언한 수카르노의 새로운 정치노선은, 대중동원과 문화적 급진주의에 기반한 중국 정치체제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Liu 2011, 5). 경제적인 면에서도, 당시 탈식민지화 과정을 경험하던 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 이념과는 무관하게 - 근대적 발전의 단초를 서구 모델에 기반을 둔 경제개발에서 찾았던 것과 달리, 인도네시아는 중국 모델을 따른 국가주도형 경제정책을 밀어붙이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중국식의 집단농장체제가 인도네시아 시골마을에도 도입되기 시작했다. 한편 프라무다 아난타 투르(Pramoedya Ananta Toer)로 대표되는 급진적 지식인과 사상가들은, 인도네시아 문학의 미래를 당시 공산주의 중국에서 퍼져 있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문화적 급진주의에서 찾으려 했다(Liu 2011, 233-266).

그러나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관계 진전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화인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우선 독립 직후부터 큰 문제가 된 것이 화인을 비롯한 외국계 주민들의 국적(kewarganegaraan) 문제였다. 해외 거주 화인에 대한 중국의 기본적 입장은 속인주의였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민의 이중국적을 불허하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대대로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인도네시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화인들(Peranakan)의 경우 화인들의 경우 국적이 불명확해지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 결과 종종 이들은 외국인에 대한 경제적 차별정책의 대상이 되곤 했다.<sup>10)</sup>

이런 상황과 관련하여 논란이 된 문제 중 하나가 화인들의 정치참여 여부와 방식이었다. 1955년 첫 총선을 앞두고, 인도네시아 국민당은 중국

10) 화인들의 국적 문제는 1954년 11월부터 중국과 협의가 시작되었고, 1955년 반둥 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화인들이 협정 발효 후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자유롭게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1958년 수카르노는 인도적 차원에서 인도네시아에 이미 오래 거주한 외국인들(orang asing)의 경우 인도네시아인과 동등한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자본 또한 외국자본(modal asing)이 아니므로 토착자본(modal asli)과 동등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런 선언의 배경에는 더욱 긴밀해진 중국과의 관계 및 중국으로부터의 지원 약속이 있었다. 화인 문제에 관한 협상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중국 정부로부터 미화 30만 불에 달하는 지원을 받았다(*Sin Po*, 1958/01/05; 1959/09/09). 그러나 1955년의 협정이 중국에서는 1957년에 인준을 받은 것과 달리 인도네시아에서는 1960년 초까지 인준을 받지 못했다. 1960년에 100만 명에 달하는 국적선택 대상자 중 70% 정도가 인도네시아 국적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Lindblad 2008, 141-142).

계를 비롯한 당내의 소수민족들은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고 ‘토착민(orang asli)’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려 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국적협의회(Badan Permusyawaratan Kewarganegaraan Indonesia, BAPERKI)<sup>11)</sup>의 수장인 씨아우기옥찬(Siauw Giok Tjhan)은 그런 결의안은 인종차별이라고 반박하면서, ‘토착(asli, indigenous)’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의적일 뿐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해온 것이고, 따라서 화인들도 인도네시아인으로서 후보를 낼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Suara Rakjat Sumatera*, 1954/04/06; 1954/06/21).<sup>12)</sup> 이처럼 화인들의 정치적 권리를 억제하려는 ‘인도네시아인’들과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려는 화인들 사이에 정치적 긴장관계가 이어졌다.

화인들을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했던 또 다른 요소는 이들이 국가 경제위기의 주범이라는 비난이었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물론 여전히 경제의 큰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서구자본, 그리고 네덜란드와의 독립 협상에서 합의된 전쟁배상금 지급 등에도 원인이 있었다. 그러나 경제위기의 또 다른 주된 요인으로 제기된 것이 아직 영국령에 속해 있던 싱가포르 및 말레이 반도와 밀 무역을 통한 자원의 유출이었고, 밀무역이 대개 화인들에 의해 운영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화인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인도네시아, 그리고 동남아 전체 화인들은 상업과 무역에서의 성공으로 인해서 ‘무역하는 소수민족(trading minority)’ 혹은 ‘중개인 소수민족(middlemen minority)’이라는 이미지로 인식되어 왔는데(Thung 151), 이 시기에는 이것을 넘어서 ‘밀수하는 소수민족(smuggling minority)’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경제 문제와 관련된 또 다른 비난은 화인들의 존재 자체가 인도네시아

11) BAPERKI는 1954년에 설립되었고, 1965년 수하르토가 권력을 장악한 후 공산당과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강제 해산되었다. BAPERKI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Winarta 2008, 60-61; Lev 2011).

12) 1960년대 전반까지 활발하게 정치에 참여했던 인도네시아 화인들은, 수하르토 집권 후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면서 그들의 문화적, 경제적 특성만 부각되어 종족적 특성으로 각인되었다. 통주란(Thung Ju-lan)은 이것을 “정치적 중국인(Political Chinese, 1950년대)”에서 “문화적 중국인(Cultural Chinese, 1960년대)”으로의 (강요된) 변화라고 지적한다(Thung 2012, 148). 신질서기 화인들의 탈정치화 현상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신윤환 2000, 463-468; 2001, 45-52).

토착자본 형성을 가로막는다는 비난이었다. 1950년대 초반부터 화인들의 상업독점을 막기 위한 다양한 ‘토착 사업가 보호정책’이 도입되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였다. 가장 큰 파장을 일으켰던 것이 이른바 아삿(Assat) 운동이었다. 이것은 1950년대 초 내무부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던 아삿이라는 정치인이자 사업가에 의해 1950년대 중반부터 제창된 운동으로, 국내 사업/기업은 모두 ‘외국인’이 아닌 ‘인도네시아인’ 사업가가 소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여기서 ‘외국인’으로 공격의 대상이 된 것이 화인들이었는데, 그는 화인들을 식민지기에는 네덜란드 정부를, 중국 국민당 정권하에서는 장개석을, 지금은 모택동을 지지하는 기회주의적 집단으로 규정하고, 인도네시아인과 화인을 인력거꾼과 인력거의 승객으로 묘사하는 등 화인자본에 대한 극도의 반감을 자극했다(Feith 1962, 481-482).

화인들 중에서도 더 큰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이 이른바 국민당계, 즉 친대만계 화인들이었다. 인도네시아 화인사회 내에서 국민당계와 공산당계의 갈등은 20세기 전반 중국 민족주의 운동이 인도네시아에 영향을 끼치던 때부터 있어왔는데, 1949년 국민당 정부의 패배와 중국대륙의 공산화 이후 더욱 극심해졌다. 중국대륙에서 대만으로 밀려간 국민당 정부는 1949년 이후 해외 화인사회에 지지기반을 확충하는 데 힘을 쏟았는데, 인도네시아가 그 주요 대상의 하나였다. 1950년 인도네시아 내 국민당원의 수가 41,584명이었는데, 이것은 대만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당원을 보유한 국민당 조직이었다. 전체적으로 당시 인도네시아 화인들 중 30% 정도가 국민당계로 분류될 수 있을 정도로, 국민당계는 화인사회에서 강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다(Liu 2011, 156). 국민당계와 공산당계의 경쟁 속에서 인도네시아 화인사회는 언론, 경제기구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두 정치성향의 조직이 혼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군부는 1950년대 초부터 이들 두 집단 간의 대립을 경계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두 집단의 갈등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미묘한 태도 변화이다. 인도네시아가 중국보다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던 1950년대 초반 해도 정부가 두 집단의 대립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하거나 오히려 공산당계의 활동을 감시, 통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1950년

대 초기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친공산당계 화인들이 싱가포르와 중국 화인들과 교류하는 것에 큰 우려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친중국계 화인들에 대한 가혹한 정책으로 이어졌다.<sup>13)</sup> 당시 자카르타 화인 대표는 정부에 보낸 탄원서에서, 인도네시아 이민국이 중국을 방문하려는 화인들에게 “인도네시아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폐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sup>14)</sup> 이와 같이 1950년대 초반 인도네시아 정부는 새로운 중국의 존재가 자국 내 화인들을 동요시킬 것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진전되면서 인도네시아와 대만의 관계는 점차 악화되었고, 화인사회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입장은 국민당계를 비판, 탄압하는 방향으로 변해갔다. 이런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가 인도네시아 지역반란이었고, 이것은 화인사회, 특히 국민당계 화인들의 정치적, 경제적 쇠퇴를 불러왔다.<sup>15)</sup>

#### IV. 지역반란과 화인사회, 그리고 국민당계

사실 대만과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지역반란 이전부터 적대적인 관

13) 일례로 1950년대 초 중부 수마트라 경찰 보고서는 2,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리아우주(Riau州) 중화총회(中華總會, Hoa Kiau Joint Association)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보고에 따르면 이 단체가 『소련 Soviet Union』이라는 공산주의 성향의 잡지를 배포하다가 경찰에 적발, 잡지를 압수 당했다고 한다(“Berkas mengenai Kegiatan Politik dari Orang-orang Tionghoa yang beraliran Kiri di Kep. Riau,” RA 8 1832, ANRI). 다른 정부 보고서에서는 중국-인도네시아-싱가포르, 말라야 사이에 공산주의 서적과 잡지가 유통되는 것에 대한 정부의 경계심이 나타나 있다(“Berita Pers Tionghoa tentang Pengangkutan Buku-buku dan Madjalah-madjalah dari Tiongkok ke Singapore melalui Indonesia,” RA8 1315, ANRI).

14) “Surat dari Ikatan Perkumpulan Tionghoa di Jakarta kepada Perdana Menteri mengenai permohonan meninjau kembali surat keterangan yang wajib diisi oleh warga Tionghoa bila hendak berpergian ke Tionghoa,” RA 8 2067, ANRI.

15) “Surat Kedua Dewan Nasional kepada Perdana Menteri mengenai kedudukan social ekonomi orang Tionghoa dalam RI pada waktu sekarang,” RA 8 2445, ANRI.

계를 형성했다.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민당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했고, 대만은 독립국이 아니라 (통합되어야 할) 중국 영토의 일부라는 중국정부의 입장에 적극 동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한 대만 정부의 입장 역시 우호적일 수가 없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 지역반란에는 미국뿐 아니라 미국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동아시아 국가들도 반란에 개입되었다. 한국전쟁에서 중국군의 개입으로 인한 영향을 목격했던 한국, 대만, 미국 정부는 중국이 인도네시아 정부를 돕기 위해 군대를 파견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공유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공산화가 친 대만계 화인과 그들의 자본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 대만은, 반란을 위한 자금과 무기지원은 물론, 군대의 파견과 반군의 군사훈련 지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반란에 개입했다(*Harian Rakjat*, 58/03/21; Kahin & Kahin 1995, 167-168; 185-188).<sup>16)</sup> 그렇지 않아도 미국과 PRRI, SEATO의 상호연계를 의심하고 있던<sup>17)</sup>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역반란과 대만, SEATO 간의 긴밀한 연계에 대한 확신을 가졌고, 대만과 국민당계 화인들이 미국과 반군의 중개자 역할을 한다고 비판했다.<sup>18)</sup> 그런 비판의 근거에는 몇몇 화인 명망가들의 적극적인 반란 지원뿐 아니라, 전반적인 이들의 경제활동, 특히 싱가포르, 말레이 반도와 밀무역이 있었다.

16) 당시 언론과 인도네시아 군부가 발간한 자료를 보면, 당시 대만뿐 아니라 싱가포르, 홍콩 등지의 중국계 자본이 대규모로 반군에 재정적 지원을 했음이 나타난다. 특히 싱가포르는 반란의 경제적 중심지 및 정치적 도피처 역할을 했다(Staf Umum Angkatan Darat, PRRI, 187-229; “Singapura, Hongkong sarang subversif.” *Harian Rakjat*, 1958/03/01).

17) 인도네시아 정부는 1957년 초부터 외국자본의 반군 지원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었다(*Sin Po*, 1957/02/07). 가장 큰 의혹의 대상이 된 것이 당시 수마트라에 진출해있던 미국계 석유회사들로, 이들이 인도네시아 반군세력을 부추겨 풍부한 석유매장량을 보유한 수마트라를 인도네시아에서 분리시키려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심이었다(*Harian Rakjat*, 1957/01/10; *Harian Rakjat*, 1958/03/28).

18) “Washington-Padang lewat Taipeh: Orang-orang Kuomintang pembantu ‘SEATO & PRRI’”( *Harian Rakjat*, 1958/03/21). 1958년 3월 인도네시아 군 비밀정보부의 수켄드로(Sukendro) 대령은 대만 국민당에서 파견된 인물들이 수마트라와 술라웨시 반군에게 비행기로 무기를 지원하는 음모를 발각했다고 발표했다(*Sin Po*, 1958/03/22).

사실 과거 혁명기(Revolusi, 1945-49), 즉 2차대전 직후 식민지를 되찾기 위해 돌아와서 점차 영토를 확장해가던 네덜란드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것이 화인들의 경제활동(밀무역)이었다. 무역의 기본 구조는 이들 상인들이 인도네시아(특히 수마트라)의 자원과 농업 생산물을 싱가포르로 보내고 그 대가로 무기와 식량을 가져오는 형태였다. 이런 형태의 무역은 1950년대에도 계속되었는데, 혁명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개 물물교환(barter) 형태로 이루어졌다. 자바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우, 독립 이후에도 식량과 필수 생활용품의 공급을 주로 싱가포르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교역의 지속은 생존을 위한 문제였다.

그런데 혁명기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반군 지도자들 역시 중앙정부와의 전투에 필요한 무기와 보급품의 확보를 위해서 화인 상인들을 이용한 싱가포르와의 (밀)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싱가포르와의 교역을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고, 1957년 말부터 싱가포르와의 무역을 강하게 통제하기 시작했다. 일례로 식량난 해결을 위해서 지역의 생산물인 코프라(copra)와 싱가포르로부터 유입되는 쌀의 물물교환 무역을 허가해달라는 술라웨시 상인들의 청원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그것이 결국은 술라웨시 주민들이 아닌 반군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거절했고(*Harian Rakjat*, 1958/02/21), 또 2월 말부터 싱가포르와의 물물교환 무역을 전면 금지한다는 최후통첩을 선포하기도 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밀무역은 지속되었고, 여기에는 화인 자본가들뿐 아니라 ‘토착민’ 관료나 군인들 역시 개입된 경우가 많았다.<sup>19)</sup> 반군 지도자들과 중국계 상인들의 협력은 중앙정부와 그 지원세력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고, 반군과 싱가포르/말라야 간의 밀수에 연루된 화인들은 배신자로 낙인찍혔다. 이런 현상은 PRRI와 Permesta뿐 아니라 다른 지역반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일례로 북부 수마트라에 거주하던 토아(Thoa)라는 국민당계 거상은, 수카르노 정

19) 일례로 수미트로도 직접 이런 비밀거래에 참여, 150,000톤의 인도네시아 고무를 ‘국민당계 거상(saudager Kuomintang)’과 물물교환(barter) 방식으로 거래하러 했다(*Sin Po*, 1958/03/22).



부 전복과 이슬람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다룰 이슬람(Darul Islam) 반란의 아체 본부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Suara Rakjat Sumatera*, 1954/12/14).

전술한 것처럼 화인 상인들 중에서 주로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이 국민당계 화인들이었다. 친중국계 화인들은 물론, 인도네시아 정부와 그 지지자들에게 대만과 장개석의 이미지는 봉건적, 반혁명적인 것이었고, 대만의 지원을 받는 반군세력에 대해서도 유사한 이미지가 만들어졌다.<sup>20)</sup> 인도네시아 정부는 반군이 구성하려는 정부가 장개석의 그것과 같은 독재 체제라고 비판하면서, 그들이 (반군의 정신적 지도자인) 하타를 인도네시아판 장개석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비난했다(*Harian Rakjat*, 1958/01/15). 대만에 대한 이런 적대적인 분위기는 국민당계 화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켰고, 한편으로는 이들 중 다수가 적극적으로 반란에 개입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반란에 연루되어 탄압을 받은 화인들 일부는, 자신들은 무역활동을 했을 뿐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반군) 간의 줄다리기에 억울하게 희생되었을 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당계 인사들은 반공, 반정부라는 확실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반란에 참여했다. 일례로 1958년 초, 인도네시아 국립대학(Universitas Indonesia, UI)의 경제학 교수이자 반군의 경제자문을 맡았던 국민당계 화인 탄관포(Tan Goan Po)가 수마트라와 술라웨시의 반군 지원 활동을 위해서 출국허가증을 위조해서 싱가포르로 빠져나가려 한 사건이 있었고(*Sin Po*, 1958/03/31), 그 외에도 많은 반공 성향 화인들이 반란에 연루된 사례가 밝혀졌다.

국민당계 화인들이 점점 반란에 깊이 개입되고 그 반대급부로 그들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면서, 대만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공산화를 막고 국민당계 화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인도네시아 지역반란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그러나 대만의 과병과 지원은 인도네시아 내전의 결과를 바꾸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신이 돕고자 했던 국민당계 화인들이 예상치 못한 역풍을 맞는 결과를 가져왔다. 1958년 5월부터 7월 사이, 출

20) 공산주의 성향의 화인들은 국민당계를 “제국주의적, 봉건주의적, 관료주의적”이라고 비판했다(“Kutipan dari Edisi Tionghwa Seng Hwe dan Sin Po mengenai Penduduk Tionghoa di Indonesia dan Masalah Tionghok,” RA 8 2450, ANRI).

판인, 사업가 등 다양한 직종의 국민당계 화인 19명이 체제전복 기도 혐의로 체포되었고, 곧이어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민당계 단체의 활동금지와 국민당계 화인 소유 기업의 국유화를 단행했다(Kahin & Kahin 1995, 188).<sup>21)</sup>

중국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내부적으로 경제국유화가 진행되면서, 국민당계 기업들이 피해를 입거나 심할 경우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이어졌다.<sup>22)</sup> 서문에 언급된 것처럼 국민당 조직의 불법화와 더불어 해당 조직에 관련된 화인들은 1958년 10월 31일까지 해당 조직 가입서류를 가지고 와서 탈퇴를 맹세하라는 최후통첩을 받았다(*Sin Po*, 1958/10/20). 가장 큰 영향은 (이미 진행되던) 화인자본 국유화의 가속화였다. 국민당계 기업은 곧 국가에서 구성한 기관에 양도되었고, 그들의 자본은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된다는 방안이 발표되었다(*Sin Po*, 1958/08/25; 1958/10/02). 이것은 1959년부터 국민당계를 넘어서 전체 화인의 상업 활동에 대한 억압으로 이어져서, 1959년 말에는 자바에서 모든 ‘외국인’의 소매업 참여를 금지하는 정부규정 10호가 발효되었다. 국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규정은 소매업을 장악하고 있던 화인상인들을 겨냥한 것이었고, 1960년까지 여기에 타격을 입은 화인들 10만 명이 중국으로 떠났다(Lev 2011, 158).

## V. 결론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논문은, 1950년대 냉전구도 속에서 인도

21)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 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아우르는 거대 조직으로 성장한, 친공산당 성향의 인도네시아 국적협의회(BAPERKI)의 영향도 있었다(신윤환 2000, 462-463).

22) “Surat Kedua Dewan Nasional kepada Perdana Menteri mengenai kedudukan social ekonomi orang Tionghoa dalam RI pada waktu sekarang,” RA 8 2445, ANRI.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 경제발전계획을 위해 사용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른바 ‘Hot Money’라는 이름으로 화인 자본을 징발하려 했다(Lindblad 2008, 139-147). 국민당계 조직을 불법화 당시 이들에게 재산을 신고하게 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네시아 화인사회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를 파악하고, 당시 발발한 PRRI/Permesta 반란이라는 특수한 맥락 속에서 화인사회를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지금까지 이 시기의 지역반란은 대체로 인도네시아 내부의 정치, 경제, 종교적 갈등구조라는 틀에서 분석되었다. 미국, 영국의 개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중국과 대만의 존재와 역할, 그리고 그것이 인도네시아 화인사회에 끼친 영향은 간과되어 왔다. 이런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본 논문은 중국-인도네시아 관계의 변화, 지역반란과 화인사회의 변화, 국민당계의 몰락 등은 동아시아, 보다 넓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냉전구도와 갈등이 인도네시아라는 창에 투영된 것임을 보여주고자 했다.

지역반란에 대한 미국과 반공진영 국가들의 개입은 이들의 인도네시아 상황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냉전구도에 매몰되어 있었는가를 보여준다. 본문에서 서술된 것처럼, 수카르노가 처음부터 반서구 노선을 택했던 것은 아니었다. 반란 발발 당시 인도네시아 대사였던 앨리슨(Allison)의 증언에 따르면, 수카르노는 수차례에 걸쳐, 미국이 서파푸아의 인도네시아 귀속 문제를 도와준다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인도네시아 내의 공산당 활동을 억제하겠다는 제의를 할 정도로 미국과의 협력관계에 대해 긍정적이었다고 한다(Kahin & Kahin 1995, 110). 그러나 베트남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냉전구도 및 도미노 이론에만 몰두해 있던 미국 정부와 정보부(CIA)는 수카르노의 중립노선을 반미노선으로 이해하고, 반군을 지원함으로써 수카르노 정부의 제거 혹은 인도네시아의 분리라는 길을 선택했다. 그 선택은 차후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개선 불가능하게 악화시켰다. 반란 진압 후 더욱 강화된 반미정책이 1965년 군부 쿠데타 발발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반란 개입은 인도네시아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반란의 영향으로 가장 큰 변화를 겪은 집단의 하나는 인도네시아 화인사회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반란에 동조, 참여한 국민당계 화인들은 막대한 정치적,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이들의 자본이 몰수되면서 화인 경제의 많은 부분이 정부의 관리 혹은 통제 하에 들어가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촉발된 대만 정부의 적극적인 반란 개입

은 이들의 오히려 이들의 몰락을 가속화시켰다. 이와 달리, 반란 후 교도 민주주의하에서 공산당이 가장 강력한 정치세력의 하나로 부상함에 따라,<sup>23)</sup> 인도네시아 국적협의회로 대표되는 친공산당 화인들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했고, 중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이들의 입지는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런 성공은 더 큰 좌절을 노정한 것이기도 했다. 수카르노의 극단적인 친공산당 정책은 공산당의 최대 정적이던 인도네시아 군부의 우려를 증대시켰고, 이것은 결국 1965년 10월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군부 쿠데타와 수카르노 정권의 몰락, 수하르토 체제(신질서)의 등장으로 귀결되었다. 수하르토 정권이 공산당 관련자 및 수카르노 지지자에 대한 탄압, 학살을 자행하면서 이번에는 공산당계 화인들이 투옥과 학살, 조직의 불법화를 경험하게 되었고(신윤환 2000, 463), 화인들의 정치적 참여 자체가 사실상 금지되었다.

이런 변화는 한편으로 인도네시아 화인사회의 연속성 혹은 변화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해준다. 흔히 인도네시아 화인사회는, 식민지기 이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와 이윤의 축적을 위해 정권과 협력하는 한편 스스로의 정치적 표현과 권리의 포기를 감수했다고 (혹은 강요받았다고) 얘기된다.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는, 인도네시아 근현대사에서 거의 유일하게 화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높이고 의회와 행정부 진출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기였다는 점에서 다른 시기와 구분되곤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당시 지역반란에서 이들이 정치적 혹은 경제적 입장에 따라 적극적으로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집단을 후원한 것도 어느 정도 정치적 참여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정치적 입장과 상황에 따른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운명을 토착민(orang asli) 정치집단의 성패에 걸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지역반란 당시 화인사회의 변화는 이전, 이후 시기 화인사회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겠다. 그리고 그런 연속성은 통주란이 말한 ‘정치적 중국인’에 내재된 (스스

23) 지도부 다수가 반란에 동조했던 이슬람 연합회 등의 정당들은 막대한 타격을 입었고, 인도네시아 국민당도 정치적 노선에 따라 분열되었다. 주요 정당들 중 오직 공산당만이 반란 이후 오히려 세력을 확장하는 데 성공했다(Lev 2011, 157).

로와 토착사회 모두가 느끼는) 불안정성과 위험성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신윤환 (2000). “인도네시아의 화인: 경제적 지배와 정치적 배제 사이에서.” 조흥국 편. 『동남아의 화인사회』. 서울: 전통과 현대, pp. 424-474.
- 신윤환 (2001). 『인도네시아의 정치경제: 수하르토 시대의 국가, 자본, 노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Anderson, Benedict R. O’G. (2002). “Twilight Dogs-Jangled Nerves.” *Indonesia* Vol. 73, pp. 129-144.
- Asnan, Gusti (2007). *Memikir Ulang Regionalisme: Sumatera Barat Tahun 1950-an*. Jakarta: Yayasan Obor Indonesia.
- Baskara T. & S. J. Wardaya (2007). *Cold War Shadow: United States Policy toward Indonesia, 1953-1963*. Yogyakarta: PUSdEP.
- Chiot, Daniel & Anthony Reid (1997). *Essential Outsiders: Chinese and Jews in the Modern Transformation of Southeast Asia and Central Europe*.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Cribb, Robert (2000). *Historical Atlas of Indonesi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Dick, Howard (2002). “Formation of the Nation-State, 1930s-1966.” Howard Dick et al. *The Emergence of a National Economy: An Economic History of Indonesia, 1800-2000*. Leiden: KITLV Press, pp. 153-193.
- Doeppers, Daniel (1972). “An Incident in the PRRI/Permesta Rebellion of 1958.” *Indonesia* Vol. 14, pp. 182-195.
- Harvey, Barbara (1977). *Permesta: Half a Rebellion*. Ithaca: Southeast Asia Program, Cornell University.
- Jones, Matthew (1999). “Maximum Disavowable Aid: Britain, the United States and the Indonesian Rebellion, 1957-58.” *English Historical Review* Vol. 114. No. 459, pp. 1179-1216.
- Kahin, Audrey & George Mc T. Kahin (1995). *Subversion as Foreign Policy: The Secret Eisenhower and Dulles Debacle in Indonesia*.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Leirissa R. Z. (1991). *PRRI/Permesta: Strategi Pembangun Indonesia tanpa Komunis*. Jakarta: Pustaka Utama Grafiti.
- Lev, Daniel S. (2011). *No Concessions: The Life of Yap Thiam Hien*,

- Indonesian Human Rights Lawyer*.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Lindblad, J. Thomas (2008). *Bridges to New Business: The Economic Decolonization of Indonesia*. Leiden: KITLV Press.
- Liu Hong (2001). "Social Capital and Business Networking: A Case Study of Modern Chinese Transnationalism." *Southeast Asian Studies*. Vol. 39. No. 3, pp. 358-379.
- Liu Hong (2011). *China and the Shaping of Indonesia, 1949-1965*. Singapore: NUS Press.
- McMahon Robert J. (1999). *The Limits of Empire: The United States and Southeast Asia since World War II*.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Reid, Anthony (ed.) (1996). *Sojourners and Settlers: Histories of Southeast Asia and Chinese*.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Suryadinata, Leo(1995). *Prominent Indonesian Chinese: Biographical Sketches*. Singapore. ISEAS.
- Suryadinata, Leo (ed.) (1997). *Political Thinking of the Indonesian Chinese: A Soucebook*. Singapore: NUS Press.
- Tagliacozzo, Eric and Wen-Chin Chang (eds.) (2011). *Chinese Circulations: Capital, Commodities, and Networks in Southeast Asia*.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Thung Ju-lan (2012). "Ethnicity, Nation-state and Citizenship among Chinese in Indonesia." Wendy Mee and Joel S. Kahn (eds.). *Questioning Modernity in Indonesia and Malaysia*. Singapore: NUS Press, pp. 145-166.
- Twang Peck Yang (1998). *The Chinese Business Elite in Indonesia and the Transition to Independence 1940-1950*. Kuala Lumpur: Oxford University Press.
- Willmott, Donald E. (1961). *The National Status of Chinese in Indonesia 1900-1958*. Ithaca: Southeast Asia Program. Cornell University.
- Winarta, Frans H. (2008). "No More Discrimination against Chinese." Leo Suryadinata (ed.). *Ethnic Chinese in Contemporary Indonesia*. Singapore: ISEAS, pp. 57-74.
- Yong Mun Cheong (2003). *The Indonesian Revolution and the Singapore*

*Connection, 1945-1949*. Leiden: KITLV Press.

인도네시아 국립문서보관소(Arsip Nasional Republik Indonesia, ANRI) RA 8  
Secretariat Negara Kabinet Perdana Menteri 1950-59.

Staf Umum Anakatan Darat, PRRI.

“Ini Dia Hubungannya ‘PRRI-Stanvac-Caltex.’” *Harian Rakjat*. March 28, 1958.

“SEATO go to hell!.” *Harian Rakjat*. March 26, 1958.

“Anti-PRRI dan Anti-SEATO.” *Harian Rakjat*. March 15, 1958.

“Barter untuk memperkaja tokoh-tokoh Permesta.” *Harian Rakjat*. February  
21, 1958.

“Nagara asing beajai gerakan subversif di Indonesia.” *Sin Po*. February 07,  
1957.

*Djakarta Miscellany*. September 26, 1958.

*Haluan*. January 05, 1958; January 21, 1958.

*Harian Rakjat*. January 16, 1957; January 10, 1957; September 09, 1957;  
December 02, 1957; January 15, 1958; March 01, 1958; March 21, 1958.

*Sin Po*. January 05, 1958; March 22, 1958; March 31, 1958; August 25, 1958;  
September 09, 1958; October 02, 1958; October 20, 1958.

*Straits Times*. February 15, 1958.

*Suara Rakjat Sumatera*. July 19, 1952; June 21, 1954; December 14, 1954.

| 논문투고일 : 2014년 02월 28일 |

| 논문심사일 : 2014년 03월 05일 |

| 게재확정일 : 2014년 03월 14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1, No. 1 (2014)

## **Regional Rebellion and Ethnic Chinese in the 1950s' Indonesia**

**Woon-Kyung Yeo**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Sogang Univ.)

This article explores regional rebellion and the changes in Chinese community in Indonesia in the 1950s, focusing on the decline of the Kuomintang (pro-Taiwan) group. In the mid-1950s, regional rebellion (PRRI, Permesta) broke out under the banner of anticommunism and regional autonomy. Obsessed with the Cold War mindset of ousting the pro-PRC and pro-communist Indonesian government, the U. S. and their allies supported the rebels. Among the allies, Taiwan supported the rebellion in a large scale, and many Kuomintang Chinese were involved in it. As a result, the political division of the Chinese community in Indonesia was intensified, and the Kuomintang group faced political and economic suppression by the government. This study exhibits that the rebellion was a site where Indonesia was connected to other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in the Cold War context, and examines what impacts the rebellion had on the ethnic Chinese in the 1950s.

- Key words: Regional Rebellion, ethnic Chinese in Indonesia, Kuomintang, Taiwan, Cold War